

IBK저축은행 부산중앙지점 고객 박종원 광혜병원 장례식장 대표

“아름다운 걸음을 함께합니다”

‘나보다 전체를 생각하는 마음’이라는 경영 철학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주)광혜병원 장례식장 박종원 대표. 기업 경영을 통해 어려운 이웃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며 많은 이들에게 울림을 주는 박종원 대표의 아름다운 스토리를 들어본다.

“시냇물이 큰 강을 이루듯이 작지만 따뜻한 실천을 모아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부산 온천동에 자리한 (주)광혜병원 장례식장의 박종원 대표는 한결같은 신념을 바탕으로 경영 활동을 펼치고 있다.

농협중앙회에서 금융인으로서 오랫동안 활동한 후 2013년 11월부터 광혜병원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는 박 대표는 장례식장을 통해 이웃의 수많은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며 기업을 경영하고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솔선수범하고 있다. 아직은 편견이 존재하는 장례 사업을 이끄는 전문 경영인으로서 선진적인 장례 문화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며 자신의 경영 활동을 통해 사회에 큰 보탬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그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지역사회를 위한 아름다운 장례 문화를 이끈다

박 대표는 장례식장을 경영하면서 생활 비관 혹은 고독사 등의 이유로 안타까운 생명을 저버리는 사람들, 어려운 생계 때문에 장례조차 치를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이웃들을 직접 접하게 됐다. 장례 사업의 경영인으로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더 이상 이러한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는 생각에 박 대표는 적극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해 왔다.

“장례식장을 운영하면서 소외된 이웃들의 딱한 사정을 알게 된 후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

다. 개인의 이익보다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마음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 대한 생각을 우선 했죠. 처음에는 홀몸노인이나 무연고자의 장례를 돕는 작은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딱한 사정의 이웃에게 빈소나 분향실을 무료로 제공하고 필요하면 상주 역할도 자처했습니다.”

박 대표는 작은 실천에서 멈추지 않았다. 전문 경영인으로서의 역량을 장례 사업을 위해 펼쳐 온 것이다. 박 대표는 온천3동 주민자치위원회 및 장학회 이사, 복지협의체 위원, 온천동번영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며 지역사회의 취약 계층을 위한 체계화된 장례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앞장섰다. 정부 기관 및 시의회 등의 문을 끊임없이 두드리며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는 장례 시스템에 대한 다양한 비전을 제시해 온 박 대표의 노력은 큰 결실을 봤다. 광혜병원 장례식장은 지역 행정관청과 ‘행복고리공동체 협약’을 맺고 온천1~3동의 지역주민센터와 연계해 장례를 치르기 힘든 상황의 이웃들에게 빈소 및 분향실을 무료로 제공하고 전담 장례 인원을 구성하는 내용의 ‘취약 계층을 위한 장례 지원 시스템’을 운용하게 됐다.

“저는 장례 사업을 단순한 돈벌이로 보지 않습니다. 누구나 맞이하는 삶과 죽음의 경계를 함께하는 장례 사업은 분명 공익적인 부분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것이야말로, 이런 활동을 많은 이들에



박종원 (주)광혜병원 장례식장 대표는 이웃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기업을 경영하고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솔선수범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자리한 광혜병원 장례식장은 '취약 계층을 위한 장례 지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박종원 대표는 폭넓은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며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나눔의 정신'을 알리고 있다.

게 알리고 정착시키는 것이야말로 장례 사업 경영인으로서 수행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고 제가 하고 있는 업의 참된 가치를 추구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박 대표의 이러한 신념과 노력은 현재 부산광역시와 한국장례협회 부산시지회 및 부산시 장례식장 전체가 취약 계층을 위한 장례 지원 시스템에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하게 되는 효과를 불러왔다.

효의 가치를 통해 장례 문화의 미래를 바라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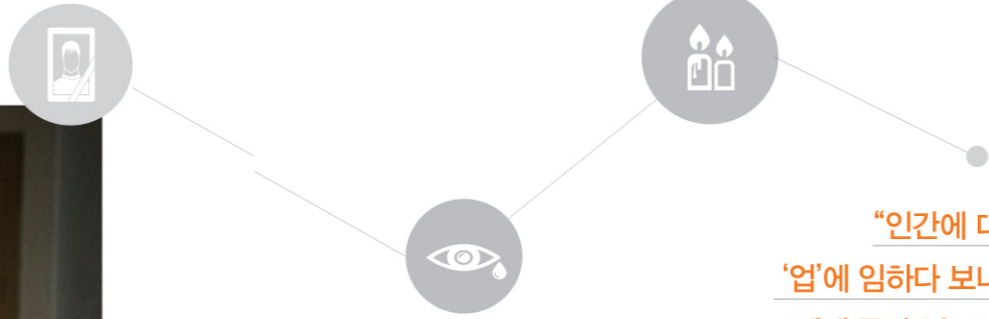
박 대표가 장례식장을 경영하면서 또 한 가지 주목한 것은 선진적인 장례 문화의 정착이다. 우리 사회의 구성원 모두에게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바탕으로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웰-다잉(well-dying)’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박 대표는 세계 각국의 선진적인 장례 시스템을 직접 찾아다니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장례 문화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박 대표는 선진적인 장례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우선 전통적인 ‘효’의 가치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한국의 미풍양속인 ‘효’와 ‘공경사

상’은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급격한 경제 변화와 초고령화 시대 속 아름다운 가치인 ‘효’를 계승하기 위해 박 대표는 불교연합회와 함께 지역 어르신 1,000여 명을 초청해 경로잔치를 열었다. 그리고 상황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1,000벌의 고급 수의를 증정했다. 부모님에게 만수무병을 기원하는 의미로 수의를 선물했던 우리의 효 문화를 계승해 많은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박 대표는 장례식장에 자식이나 부모에게 미처 전하지 못한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는 ‘효 우체통’을 설치하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효 문화를 알리기 위해 ‘효 글짓기 대회’를 주최하는 등 효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이러한 인간에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박 대표는 전문적인 경영 역량을 새로운 장례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활용하고 있다. 모든 사회 구성원이 아름답게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전국 장례협회에 다양한 정책을 발의하고 장례 문화 시스템을 제도화해 나가고 있다. 박 대표는 보건복지부 등 정부 기



“인간에 대한 존경의 마음과 사회에 도움이 되기 위해 마음으로 ‘업’에 임하다 보니 사업도 자연스럽게 잘되고 있습니다. 다른 이에게 베풀 만큼 제게 돌아오는 것이 삶의 이치인 것 같습니다. 다른 이들과 더불어 함께 가는 것이야말로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요.”

관과 협력해 장례식장의 세부 거래 장부 공개를 제도화하는 등 전문적인 장례 문화 정책의 기틀을 만들어 사회 구성원 모두가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건강한 장례 문화를 정착시키고 있다. 최근 박 대표가 추진한 장례 문화 시스템은 ‘국가 재난 대비 지정 장례식장’ 제도인데, 국가에 대형 재난·재해 발생 시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장례식장이 우선적으로 국가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박 대표의 광혜병원 장례식장 역시 해당 지역의 1호 지정 사업체로 선정됐다.

사회에 울림을 주는 경영인

박 대표의 아름다운 걸음은 비단 장례 문화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장례식장을 경영하며 나눔을 실천하던 박 대표는 선진국에 비해 원활하지 않은 우리의 기부 문화에 많은 아쉬움을 느꼈고 보다 적극적인 사회공헌 활동 문화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체감했다. 박 대표는 부산 지역 로타리클럽 회장직을 맡으며 취임식 때 모인 십시일반의 기부금과 쌀 성금 500여만원을 불우한 이웃에게 기부했다. 지난여름에는 사회 취약 계층에게 선풍기 300대를 기부하는 등 ‘나눔 릴레이’ 기부 행사를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고 ‘장애 아동을 위한 스키학교’ 개최 등 다양하고 폭넓은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나눔의 정신’을 알리고 있다.

현재 그리 길지 않은 장례식장 경영 활동에도 불구하고 박 대표의 장례식장 사업은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좋은 마음으로 저의 ‘업’에 임하다 보니 사업도 저절로 높은 매출을 기록하게 되더군요. 다른 이에게 베풀 만큼 제게 돌아오는 것이 삶

의 이치인 것 같습니다. 사회와 더불어 함께 가는 것이야말로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박 대표의 아름다운 발걸음은 지속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이 아름다운 동행을 함께해 나아갈 것이다. **SP**

Interview

“사회와 함께하는 진정성 있는 파트너십”

IBK기업은행 부산중앙지점과 (주)광혜병원 장례식장 박종원 대표는 단순히 사업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가치를 공유하는 깊은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박 대표는 농협중앙회에 재직 시 어음 교환 업무를 담당할 때부터 인연을 이어온 IBK기업은행



박종원 광혜병원 장례식장 대표와 김성미 IBK저축은행 대표.

금사공단 이성균 지점장의 소개로 IBK저축은행 부산중앙지점과 첫 관계를 맺었다. 박 대표는 “처음엔 무료 수의 나눔 활동과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자금 확보를 위해 IBK저축은행 부산중앙지점을 찾았습니다. 김성미 IBK저축은행 대표와 부산중앙지점의 전민수 지점장 및 이경진 부지점장의 따뜻한 도움과 지원이 있었기에 저의 사회공헌 활동도 가능했습니다. IBK저축은행 부산중앙지점은 정량화된 지표나 수치보다 고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장을 직접 찾아 고객이 추구하는 정책과 가치에 깊은 공감대를 형성해 줬습니다. 이런 공감대를 업무에 접목하는 IBK저축은행 부산중앙지점만의 시스템과 따뜻하고 친절한 응대에 언제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IBK저축은행 부산중앙지점 전민수 지점장은 “우리는 여신 심사를 할 때 단순히 재무제표와 정량화된 수치보다 고객의 정성스러운 마음과 자금이 사용되는 활동이 지닌 가치 등 비정량화된 부분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물론 박 대표님이 갖고 있는 금융인 출신 전문 경영인으로서의 투명성과 신뢰성 역시 업무 협력에 큰 바탕이 됐습니다. 다양한 나눔의 가치를 알리는 박 대표를 위해 앞으로도 협조해 나갈 예정입니다”라며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이어 나갈 것을 약속했다.